

 <b>국토교통부</b>	<b>보도설명자료</b>		
	배포일시	2021. 7. 26(월) /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	공공택지기획과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과장 양희관, 사무관 정재원</li> <li>• ☎ (044) 201-4505, 4441</li> </ul>
보도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## 정부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신혼부부·중장년층 등 다양한 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(매일경제, 7.26) >

◆ 사전청약 '찜끔' 배정에 ... 중년층 뿔났다.

- 중장년층이 유리한 가점제 7월 4,333가구 중 378 가구 뿐이며, 신혼부부 물량은 61.3% 수준

-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는 다양한 계층의 수요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.
- 이번에 사전청약으로 공급하는 유형은 모두 공공이 직접 건설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(전체 물량의 15~25% 수준)으로,
  - 신혼희망타운 및 신혼부부·생애최초 특별공급 등 내 집 마련을 처음 시작하는 무주택 수요자에게 소형 주택이 중점 공급될 예정입니다.
  - 물론, 공공분양주택에는 일반공급을 비롯해 생애최초·다자녀·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등도 있어 중장년층 등 다양한 수요자에게도 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.
-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는 민간이 건설하여 공급하는 민간분양주택(40% 내외)도 추후 공급될 예정이며,
  - 민간분양주택 가점제와 추첨제를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인 다양한 계층에게 많은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.

- 또한, 초기 자금이 부족한 세대가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새롭게 도입하는 공공자가주택(이익공유형 등)도 지구계획 변경 등을 통해 반영(5~10% 수준)하여 공급할 계획입니다.
- 아울러,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내에는 공공임대주택(35% 이상)도 충분히 반영되어 있어,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수요자도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.
-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주거복지로드맵, 3기 신도시(수도권 30만호), 5.6·8.4대책 등 그간 발표한 공급정책을 착실히 추진하여 보다 많은 내 집 마련의 기회가 국민 여러분께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

이 보도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정재원 사무관(☎ 044-201-444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